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갈보리 사랑침례교회

Perfect Words of GOD

© Calvary's Love Baptist Church 2013

Printed in Canada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 킹제임스 성경

지은이 | 김봉중

초판발행 | 2013.12.5

발행처 | 갈보리사랑침례교회

주소 | 322 Hospital St. New Westminster,

BC VANCOUVER. CANADA

전화 | 778-387-3263

홈페이지 | **www.GraceGrace.ca**

표지디자인 | 정진용 www.pichubooimages.com

Email seanchung@pichubooimages.com

갈보리사랑침례교회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는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한 분이라도 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갈보리사랑침례교회 드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 5:18).

이 책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성경입니다.

✓ 목 차 c o n t e n t s

 들어가는 말 / 6

- 1 .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 / 15
- 2 .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 / 21
- 3 .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신 완전한 말씀 / 27
- 4 .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말씀 - 킹제임스 성경 / 34
- 5 . 성경을 번개시킨 사람들(오리겐, 웨스트코트, 호르트) / 53
- 6 . 성경 번개의 실제적인 예들 / 76
- 7 . 믿음의 선택 / 116

들어가는 말

킹제임스 성경(KJV,1611)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히 들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01년 5월 24일 미주 지역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영역본은 킹제임스 원역(1611년). 미국 가정의 54%는 킹 제임스역을 보유하고 있다. 킹 제임스는 지난 1950년대까지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번역본이었으나 그 후 다양한 현대 번역판들이 선을 보였다... 킹제임스 이외의 현대역들 중 가장 선호되는 번역판은 NIV(새국제역). 그러나 정작 NIV 보유자는 평균 15%에 그쳐 KJV 선호도를 훨씬 밑돌고 있다. 그밖에 뉴킹제임스판(NKJ), 새미국표준역(NASB), 카톨릭 역본 (NAB)들, 신개정표준역(NRS) 등도 모두 킹제임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2001년 5월 24일 목요일 중앙일보)

이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존중하는 성경으로 보고 계십니다.

2011년은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 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영어의 언어적 형성에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백 종류의 관용어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시와 연설, 설교문, 음악, 노래, 문학 작품들을 통해 미국의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성경이 가르쳐짐으로 미국의 건국이념에 담긴 시민 정부라는 개념과 관련 법률이 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공로자도 킹 제임스 성경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취임 선서를 킹 제임스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해 왔다. 역대 국가 원수들도 성경이 미국의 발전에 끼친 탁월한 영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 ‘조국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일컬었으며,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

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내외로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의 대한 해답은 저 작은 책 안에 들어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킹 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개인, 가정, 사회의 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읽힌 저작물이며, 올해로 드디어 출판 4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이제 국회는 상·하원 공히 (1) 킹 제임스 권위역 성경의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며, (2) 그 성경이 미국의 수많은 가정과 개인과 기관들에 끼친 영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3) 그 성경이 미국에 지금까지 베푼 공적을 치하하는 바이다.”(킹 제임스 성경의 출판 400주년에 부쳐, 2011년 4월 12일, 미국 의회, 공동 결의)

미국 의회가 인정할 만큼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많은 선한 영향들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영적 부흥과 대각성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킹제

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또는 “킹제임스 성경은 훌륭한 번역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훌륭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후로 이러한 믿음이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 NIV가 나오면서부터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 5:18).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NIV와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21, 18:11, 23:14

마가복음 9:44,46, 11:26, 15:28

누가복음 17:36, 23:17

사도행전 8:37, 15:34, 28:29

로마서 16:24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까? 오랜 세

월이 지나다 보니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그럴듯한 많은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리겐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5장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킹 제임스 성경의 역사”(사무엘 킵,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9)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의해 “변개된 본문”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변개된 본문에서 NIV와 개역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변개된 본문에서 나온 다른 성경들과 20,000 ~ 30,000 군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990년대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또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욘 3:4).

아멘!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많은 배움과 학식이 있고 또 정말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나 많은 학식이 있으신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믿

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제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들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서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아시고, 그 성경을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 역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요 8:32).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 17:17).

주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빛진 자된
김 봉 중 올림
(갈보리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

thy word is truth

1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

사람들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나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합니다. 어차피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입니까?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 1:23).

아멘! 우리는 여기서 ‘썩을 썩’과 ‘썩지 아니할 썩’을 보게 됩니다. 썩을 썩는 ‘사람의 말’을 의미하고 썩지 아니할 썩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을 썩인 사람의 말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썩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성경

말씀을 가리켜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뜻밖에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음의 네모 안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 안에 정직하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 셋 중에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책을 읽는 분 중에서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라는 부분에 표시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에 표시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둘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어있겠지만, 적어도 95%~99%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잠 30:5).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경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시 12:6).

아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므로 그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아서 그 안에 사람의 말과 같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불순

물을 제거한 즉 사람의 말을 비롯한 모든 오류와 실수들을 제거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 17:17).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대할 때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thy word is truth

2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

성경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inspiration)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다면 성경 역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영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Al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플레너리”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경 기록, 즉 창세기 1:1부터 요한계시록 22:21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총 1,189장으로 31,102 구절로 되어 있으며 791,328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감”(inspiration)이라는 단어는 숨을 불어넣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흙덩어리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살아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모든 성경 기록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흠으로 지어진 사람이 흠덩어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살아있는 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 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들이 기록한 단어들인 사람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 모든 성경 기록들(단어들)에 불어 넣어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살아 있는 혼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들 즉 단어들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흠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 즉 단어들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록한 기록물 즉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100% 완전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 후 1:20,21).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기록의 대언 중 그 어떤 것에도 사람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대로만 말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부터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시 119:160)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진실은 진리(true)를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처음부터 100% 완전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기록된 것입니다.

thy word is truth

3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신 완전한 말씀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렇게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은 불완전한 성경이 되었다.

□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표시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믿음이 불명확하면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무조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 12:6,7).

아멘! 주의 말씀들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말씀들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
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렇게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눅 21:33).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
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
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성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 기록된 순수한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된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 5:18).

아멘!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단 한 글자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사 40:8).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사람에게서 나온 그 모든 말은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00% 완전한 주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시 33:11).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 기록에 대한 주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그 계획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계획이 영원히 서고 모든 세대에 이르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thy word is truth

4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말씀 – 킹제임스 성경

만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없었다면 성경은 결코 완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시 12:7) 또

그것을 지키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섭리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요셉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행한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5).

아멘! 만약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사랑의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팔았느냐고, 왜 나를 죽이려 했느냐고, 나도 형들에게 내 원수를 갚겠다고 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

님이시니이다...』(창 45:8).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권능

의 힘으로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을 세운 줄 알았습니다(단 4: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각이 없는 짐승과도 같이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단 4:32).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단 4:37).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섭리로 보존해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 원합니다.

2)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성경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로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여 명에 이릅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200년 동안 기록한 66권의 책들을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정경화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

을 것입니다.

A.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39권의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롬 3:1,2).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자신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존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필사한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사항을 준수했습니다.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서기관들은 이처럼 신실하게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필사했습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간단한 용어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원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본이라는 말은 모세든 바울이든 성경을 받아 쓴 기록자들이 맨 처음에 기록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최초의 기록물을 최초의 원본이라고 부르

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원본을 “자필 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필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을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필사본도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필사본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모아 놓은 것을 가리켜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모아 놓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라고 부릅니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 ‘전해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스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인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소라’라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에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마소라들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가리켜 「마소라 본문」 또는 「전통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B. 신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27권의 신약 성경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보존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필사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필사본이 나왔습니다. 안디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처음

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입니다.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행 11:26).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정
도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긴 신자들을 통하여 많은 필
사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필사본을 가리켜 ‘다수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1967년
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개
입니다.

이 중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 267개의 대문자 사본,
2,764개의 소문자 사본, 2,143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10개의 사본 즉 99%의 사본이 안디옥 계열
의 ‘다수 필사본’입니다. 나머지 1%의 사본(45개)은 성경을

믿지 않는 로마 가톨릭에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변개 시킨 ‘소수 필사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다수 필사본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다수 필사본을 하나의 본문으로 모아 놓은 것을 ‘다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필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한 본문은 ‘국지적 본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한 본문은 1%밖에 안 되는 소수 본문으로 자기들끼리만 보는 주로 지역적으로 제한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다수 필사본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본문으로 만들어 놓으셨

고, 이 본문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공인 본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기에 「수용 본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을 보통 TR(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공인 본문(TR)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종교개혁 본문인 공인 본문(TR)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하신 신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C.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 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만 놔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주후 150년경에는 시리아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구 시리아 역본), 라틴어로도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구 라틴 역본).

또한, 1522년경에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루터의 독일어 성경), 프랑스어로도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1537년 올리베탕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틴데일을 통하여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1525년 틴데일 성경). 그 이후 커버데일 성경, 메튜 성경, 테머너 성경, 그레이트 성경 등 많은 영어 성경이 나왔지만, 본문은 틴데일 성경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의 표준이 되는 기준 성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제임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임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임스 왕을 통하여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1604년 6월 30일에 제임스 왕은 성경 번역을 위해 54명의 번역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언어에 탁월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번역에 참여한 분들은 47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퍼드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각각 두 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총 6개 그룹으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먼저 자신들에게 할당된 번역 작업을 수행한 후, 각 그룹은 서로의 작업을 비교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초고를 비교하는 동안 각 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각 그룹이 각 장의 비교를 끝낸 후에는 이를 나머지 다섯 그룹에게 보내어 독자적인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번역되었을 때에는 각 그룹에서 두 명을 선발하여 총 12명이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각 절을 최소 14번에 걸쳐 철저히 검토하여 1611년에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출간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완전한 영어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18세기의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알렉산더 지리스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1세의 역본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망라하고 최대의 찬사가 쏟아졌다. 훌륭한 역본의 자격이 정확성, 충실성, 그리고 원문의 철자에 대한 철저한 주의 등이라고 한다면 이 공인역본

이야말로 최고의 성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모든 문장, 모든 작업, 모든 음절, 모든 철자 및 구두점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하여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문이나 난외주 역시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1989년에 기독지혜사에서 출판한 톰슨대역 한영성경 부록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을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로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pp.4 198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고 완전한 성경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원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thy word is truth

5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오리겐, 웨스트코트, 호르트)

‘감히 누가 성경을 변개시키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변개에 관한 내용은 성경 안에서도 발견되고, 성경을 다루는 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1) 성경 안에서 발견된 성경 변개의 예들

성경을 번개시킨 가장 첫 번째 예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 12:9에 나오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 마귀가 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창 3:1)

마귀의 이 질문은 아주 간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창 2: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이 질문을 받고 이브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창

3:2,3).

우리는 이브의 대답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삭제’입니다. 이브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창 2:16)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와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브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만드신 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을 제한하는 분으로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입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단어들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창 2:17)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브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창 3:3)라고 말씀하셨

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를 첨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입니다. 대체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공격적인 질문은 받은 이브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죽을까 염려하노라.”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정말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어를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사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문비평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어들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전한 교리와 완벽히 다른 교리가 담겨 있는 ‘성경들’을 많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 2:17).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 가운데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감추어 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고후 4:2).

사도 바울은 양심에 비추어 자신을 추천할 만큼 정직하게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렘 5:31).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으로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벧후 2:1).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이 몰래 들어와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마저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구약 시대에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 2:2).

거짓 교사들이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신들을 살리신 주마저 부인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라 그것을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3).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상품 취급하는 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벧후 3:16).

여기서 “그의 모든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의미합니다(벧후 3:15).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오리겐, 웨스트코트, 호르트)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발견된 성경을 변개시킨 예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교회사 안에서 실제로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변경의 대표적인 학자를 세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오리겐(Origen, 185-254)

오리겐은 AD.185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 강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이 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렘 42:19).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영적으로 매우 사악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계 11:8).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도시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이집트 같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집트를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100년경 정도에 아테네로부터 철학을 받아들인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리겐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면서 천재라고 불릴 만큼 매우 뛰어난 교사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약 6,000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고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 및 많은 신학자가 그의 글을 인용하며 매우 뛰어난 학자로 인정합니다.

오리겐이 18세가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리스 철학자들로 성경을 철학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리겐은 한때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이단자로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창조된 신이다’라는 이단 교리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고전 15:17).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또

한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3,4).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오리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리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오리겐은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오리겐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좀 더 고차원의 생명 또는 저차원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오리겐은 완전히 불교신자입니다.

또한 오리겐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형벌을 받은 후에는 즉 연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오리겐은 가톨릭 신자와도 같습니다. 심

지어 오리젠은 마귀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젠이 성경을 변개시킨 부분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오리젠이 “헥사플라”라는 6란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6란 성경은 여러 성경을 여섯 개의 란(欄)으로 만들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성경을 말합니다.

1번 란에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있었고

2번 란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음역해 놓았고

3번 란, 4번 란과 6번 란에는 다른 사람들의 역본(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티안의 역본)을 기록해 놓았고

제 5번 란에는 오리젠 자신이 변개시킨 역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게 50권의 성경을 복사하도록 했는데 이때 유세비우스는 오리

겐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오리겐이 변개시킨 역본을 사용하여 50권의 성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본이 바로 바티칸사본과 시내 사본입니다.

바티칸사본은 1481년에 로마의 바티칸도서관에서 발견되었고, 시내사본은 1844년에 시내 산 성 캐서린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사본 근거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공인본문」을 변개시킨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슬”과 “알란드”라는 사람을 통하여 「네슬-알란드 본문」이라는 변개된 헬라어 본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개된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영어로 번역한 RV라는 영어개역성경이 1884년에 나오게 되었고,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라는 ASV가 1901년에 나오게 되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NIV라는 신국제역본이 1978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영어로 된 성경이 약 120가지

정도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성경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 변개된 본문을 근간으로 하여 출간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코트의 아들이 지은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이라는 책과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직접 인용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출판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서 인용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B.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

호르트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별연구원으로, 임마누엘 칼리지와 마가레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호르트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르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호르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헬라이어 수정본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한, 호르트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에 대해서 매우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트는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오.”

그리고 호르트는 엘러톤이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오.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오.”

호르트가 꿈꾸었던 새 시대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 다윈의 진화론이 근간이 된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호르트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영원한 지옥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을 믿었습니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르트는 자신에게 질문한 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옥 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가톨릭 믿음을 유지해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았습다.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호르트는 당연히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짓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그 짓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르트는 성경적인 복음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호르트는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지 않았고 로마가톨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또한,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호르트가 「그리스어 수정 본문」을 만든 것입니다.

C.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1)

웨스트코트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평의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석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석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웨스트코트는 천지창조를 믿지 못했고 사람의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어린양의 가죽옷을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웨스트코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았고

실제적인 천국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 쉴 수 있다.”

또한, 웨스트코트는 거의 가톨릭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

또한, 웨스트코트는 호르트와 같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오.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란 단어를 부인하고...”

그 외에도 웨스트코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마리아 숭배 사상을 비롯한 가톨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공인본문」이 수정되어 「그리스어 수정 본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 본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어성경들이 나오게 되었고, 개역성경을 비롯한 나머지 한글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thy word is truth

6

성경 변경의 실제적인 예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을 통해 변경된 성경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선불리 결론을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경 본문 상의 차이

A. 구약 성경의 본문의 차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구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은 마소라들에 의해 보존된 「전통 마소라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소라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본문은 올바른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과 변개된 본문인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1937년 키텔이라는 사람이 변개된 본문인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을 근간으로 구약성경 전체에서 20,000~30,000 군대를 변개시킨 「BHK」(Biblia Hebraica Kittel) 제3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텔은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히틀러

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한 인물입니다. 키텔에 의해
변개된 「BHK」를 개정하여 1967년과 1977년에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근
간으로 NIV와 NKJV을 비롯한 많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되
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성경들 사이에는 구약성
경만 하더라도 20,000~30,000군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
다.

참고로 구약성경은 23,145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
의 매 구절에서 변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B. 신약 성경의 본문의 차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신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은
「공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공인 본문」에서 5,604군데를 수정
하여 「수정 본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1,952군데에서 삭제가 이루어졌고, 467군데에

서 추가가 이루어졌고, 3,185군데에서 변개가 이루어져 총 5,604군데가 다른 본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 박사에 의하면 5,604군데에서 9,970개의 단어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을 근간으로 네슬과 알란드가 「네슬-알란드판」 본문을 출간했는데, 이 본문에서 NIV를 비롯한 많은 영어성경들이 번역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네슬-알란드판』은 「수정 본문」보다 934개의 단어를 더 삭제해서 총 2,886개의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 단어의 분량은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가 삭제된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은 7,957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5,604군데에서 9,970개의 단어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성경 변개의 실제적인 예들

성경은 오리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키텔과 네슬과 알란드 등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삭제, 수

정, 변경되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성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구절들을 비교해 보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삭제된 구절들과 단어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개역개정)과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삭제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그 구절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변경시킨 학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처럼 중요한 구절들을 삭제하였습니다.

- 사도행전 8:37 삭제

KJV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행 8:37).
흠정역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행 8:37).

NIV, 개역개정 - (없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 마태복음 18:11 삭제

KJV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마 18:11).

홍정역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마 18:11).

NIV, 개역개정 - (없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명백한 구절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호르트의 믿음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호르트는 ‘보편적 이단 교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을 삭제하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 마가복음 9:44,46 삭제

KJV 『44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46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막 9:44,46).

흠정역 『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4,46).

NIV, 개역개정 - (없음)

성경을 번개시킨 학자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대한 구절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옥에 대한 실체를 가리기 위해 54회 등장하는 지옥(hell)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31번을 ‘스울’로 10번을 ‘음부’로 기록해 놓음으로 지옥의 실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스울’이 뭔지 ‘음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지옥을 믿지 않기에 그 믿음이 번개된 성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 마태복음 17:21 삭제

KJV 『Howbeit this kind goeth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마 17:21).

흠정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마 17:21).

NIV, 개역개정 - (없음)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삭제한 단어들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변개 시켜 놓은 구절들을 보면 마귀의 실재를 가리거나 모호하게 만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역개정은 ‘마귀’를 ‘귀신’으로 번역해 놓음으로써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다닌다는 이교도 사상을 성경에 그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곧바로 지옥이나 하늘 나라 둘 중 한 곳에 가지 이 땅 어디에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눅 16:22,23).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는 사상은 이교도 사상이지 성경과는 완벽히 다른 것입니다.

- 마태복음 23:14 삭제

KJV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ce make long prayer: therefore ye sha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마 23:14).

흠정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마 23:14).

NIV, 개역개정 -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위선에 대해 정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변경한 학자들이 주로 변경시킨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재림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 그 밖에 삭제한 구절들

개역개정과 NIV는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을 포함하여 총 13구절을 (없음)이라고 하고 삭제 했습니다(막 11:26, 막 15:28, 눅 17:36, 눅 23:17, 행 15:34, 행 28:29, 롬 16:24). 실제로 킹 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다수 필사본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없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부정직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절들은 삭제해 놓고도 (없음)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위에 있던 구절 일부를 아래로 내리거나, 밑에 있는 구절 일부를 올려서 마치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번역을 한 예도 있습니다(막 7:16, 행 24:7, 요일 5:7).

그중에 정말 중요한 구절인 요한일서 5:7과 관련된 구절은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절들을 아예 삭제한 예도 있지만, 단어들만 삭제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2,886개의 단어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삭제된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주, 거룩, 피, 말씀, 아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구원에 대한 핵심 단어들이 삭제된 것입니다.

B.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변개된 구절들

- 예수님께서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구절들

KJV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딤펴전 3:16).

흠정역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 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딤펴전 3:16).

NIV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glory』(딤펴전 3:16).

개역개정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

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딤후 3:16).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관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단지 ‘그’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 개정자들은 - 스미스와 쉐이어- 고대 사본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개역성경분석』, 그리스도 예수안에, pp.32-33.)

예수님은 단지 겸손한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잘못 믿고 있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리겐과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리고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의 일원인 스미스와 쉐이어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를 빼고 집어넣고 다른 단어로 바꿀 때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지 그냥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의도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중에 쉐이어라는 사람은 「쉐이어의 그리스어 어휘사전」(*Thayer's Greek Lexicon*)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이 그리스어 어휘 사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리스어 어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이어가 만든 그리스어 어휘사전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학자들에 의해 속은 것입니다.

KJV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whereof ye have heard that it

should come; and even now already is it in the world』
(요일 4:3).

홍정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
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

NIV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요일 4:3).

개역개정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
는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육체 안에
오신’이라는 단어들을 삭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
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변개시킨 성경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경배하는 구절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구절들에서 ‘주’와 ‘그리스도’를 삭제하였습니다.

KJV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thou art that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요 6:69).

흠정역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요 6:69).

NIV 『We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요 6:69).

개역개정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 6: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살

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 4:10).

아멘!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학자들은 '경배'(worship)라는 단어를 '절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KJV 『And, behold, there came a leper and worshipped him, saying, Lord, if thou wilt, thou canst make me clean』(마 8:2).

흠정역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마 8:2).

NIV 『A man with leprosy came and knelt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마 8:2).

개역개정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마 8:2).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NIV는 절하는 것으로 단어를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밖의 많은 구절에서 ‘경배’ 하는 것을 절하는 것으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마 9:18, 15:25 18:26, 20:20 등).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4에서는 그리스어 단어 그대로 ‘경배하다’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KJV 『And they worshipped the dragon which gave power unto the beast: and they worshipped the beast, saying, Who is like unto the beast?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계 13:4).

흠정역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계 13:4).

NIV 『Men worshipped the dragon because he had given authority to the beast, and they also worshipped the beast and asked, Who is like the beast? Who can make war against him?』(계 13:4).

개역개정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계 13:4).

개역개정과 NIV는 이상하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장면에서

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절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에서는 ‘절하다’라는 단어로 바꾸더니 여기서는 안 바꾼 것입니다.

마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삭제시킨 구절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와 같은 학자들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구절들일 것입니다.

KJV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the Son of man cometh』(마 25:13).

홍정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NIV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마 25:13).

개역개정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지 못하느니라』(마 25:13).

여기서 개역개정과 NIV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냥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KJV 『Saying, We give thee thanks, O LORD God Almighty, which art, and wast, and art to come; because thou hast taken to thee thy great power, and hast reigned』(계 11:17).

흠정역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계 11:17).

NIV 『saying: 『We give thanks to you, Lord God Almighty, the One who is and who was, because you have taken your great power and have begun to reign』(계 11:17).

개역개정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계 11:17).

개역개정과 NIV에서는 ‘앞으로 오실’이라는 단어들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들을 왜 학자들은 삭제했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C.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삭제시킨 구절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오리젠 역시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 역시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만들어 낸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삼위일체 교리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KJV 『6 This is he that came by water and blood, even Jesus Christ; not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that beareth witness, because the Spirit is truth. 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요일 5:6,7).

흠정역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요일 5:6,7).

NIV 『6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Jesus Christ. He did not come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7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요일 5:6,7).

개역성경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6,7).

우리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요일 5:7)라는 요한일서 5:7절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큼 삼위

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 이 구절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6절 끝 부분의 말씀을 마치 7절 말씀인 것처럼 교묘히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7절 말씀 전체를 삭제시킨 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원래대로 6절 말씀을 그대로 두고, 7절 말씀은 여전히 삭제 한 채 8절 말씀을 둘로 나누어 7절로 올려놓았습니다.

흠정역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요일 5:8).

개역개정 『**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7,8).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또 절까지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D. 구원과 관련하여 변경시킨 구절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엡 2:8).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갈 2:16).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이 믿음을 자꾸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

KJV 『Seeing therefore it remaineth that some must

enter therein, and they to whom it was first preached entered not in because of unbelief.』(히 4:6).

흠정역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 4:6).

NIV 『It still remains that some will enter that rest, and those who formerly had the gospel preached to them did not go in,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히 4:6).

개역개정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 4:6).

성경은 분명히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역성경과 NIV에서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완벽히 다른 것입니다.

KJV 『And to whom sware he that they should not

enter into his rest, but to them that believed not?』(히 3:18).

홍정역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히 3:18).

NIV 『And to whom did God swear that they would never enter his rest if not to those who disobeyed?』(히 3:18).

개역개정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히 3:18).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개역개정과 NIV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베드로전서 2:2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KJV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벧전 2:2).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NIV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벧전 2:2).

개역개정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한 개역개정과 NIV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들을 첨가함으로써 마치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이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의미합니다(벧전 1:23,25).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같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그 젖을 먹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고 성장해야 할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아닌 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므로 영적으로 혼미케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까지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에 개혁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JV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th again, and saith unto them, Children, how hard is it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막 10:24).

홍정역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막 10:24).

NIV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s. But Jesus said again,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막 10:24).

개역개정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막 10:24).

개역개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성장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기가 쉽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아멘!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들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롬 10:9,10).

그런데 개역개정과 NIV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는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KJV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요 6:47).

흠정역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 6:47).

NIV 『I tell you the truth,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요 6:47).

개역개정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 6:47).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성경과 NIV는 ‘나를’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KJV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골 1:14)

흠정역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NIV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골 1:14)

개역개정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4)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개역개정과 NIV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는지 가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개역개정은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JV 『The like figure whereunto even baptism doth also now save us (no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벧전 3:21).
흠정역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벧전 3:21).

NIV 『and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that now saves you also--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but the pledge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It saves you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벧전 3:21).

개역개정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벧전 3:21).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모형 곧 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가 구원의 모형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표가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표는 완벽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공동번역).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트가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르트는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이 성경적 교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호르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

호르트의 이런 믿음은 자신이 변개시킨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D. ‘갈보리’와 ‘루시퍼’가 사라진 성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갈보리’와 ‘루시퍼’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한 장소이고 ‘루시퍼’는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갈보리’와 ‘루시퍼’가 빠져 있습니다.

• 갈보리가 사라진 성경

KJV 『And when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malefactors, one on the right hand, and the other on the left』(눅 23:33).

흠정역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눅 23:33).

NIV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눅 23:33).

개역개정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눅 23:33).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33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현대 성경들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해골이라는 곳’이 갈보리를 의미하지만 ‘갈보리’(Calvary)라는 단어는 찬송가에는 있어도 현대 성경들에서는 사라진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를 단지 찬송가 가사에서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 루시퍼가 사라진 성경

KJV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st weaken the nations!』(사 14:12).

흠정역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

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사 14:12).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who once laid low the nations!』(사 14:12).

개역개정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

‘루시퍼’라는 이름은 타락하기 전의 사탄의 이름으로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없다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 ‘루시퍼’(Lucifer)라는 사탄의 이름을 ‘계명성’(morning star)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명성은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로 이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KJV 『I Jesus have sent mine angel to testify unto you these things in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계 22:16).

흠정역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NIV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give you this testimony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계 22:16).

개역개정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성경은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morning star)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의 이사야서 14:12에서는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인 새벽별(morning star)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단 한번 등장하는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사탄 대신 ‘morning star’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 왔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수많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임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thy word is truth

7

믿음의 선택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싶은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잘 믿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믿는 것 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행 27:25).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으리라.”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words,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며,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

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중세 암흑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속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요 9:22).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음을 입었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부모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요 9:22,23).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
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
백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
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아멘! 하나님을 잘 믿었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우리
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우리
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 목록’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그 사람을 성경과 함께 화형에 처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이 성경을 읽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단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교황에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단이 교황 피오 3세에게 보낸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파리의 국립박물관 Folio No. 1068, Vol. 2, pp. 650과 651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황께 드리는 조언들 중에서, 반드시 당신 눈을 열어서라도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황 아래

교구의 모든 나라들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복음서(성경)을 가능한 적게 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보통 미사 때 읽은 정도의 복음서의 그 짧은 부분만으로 충분하도록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도들 중 아무도 그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하는 한, 당신의 하는 일은 별 문제없이 진행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드는 순간, 당신의 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우리를 대항하여 성가신 일들과 소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망할 뻔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한다면, 그는 쉽게 둘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카톨릭의 가르침들은 많은 경우 성경과 다르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카톨릭과 성경을 믿지 않

는 학자들을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읽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없음)이 있는지, 왜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 대신에 계명성(morning star)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왜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기록한 요한 일서 5:7 말씀이 교묘히 빠졌는지,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고후 13:8).

아멘!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인정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

르더라도, 심지어 재산과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히 11:24-26).

아멘!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거절하고 또 믿음으로 택하길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www.GraceGrace.ca

갈보리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영화, 관련 책자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